

HOLY HABIT MOVEMENT PART 3

4. 포용 - 가장 적극적인 존중

1. 주변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의 어려운 점과 좋은 점은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 주변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려운 점과 좋은 점

❶ 어려운 점

신앙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일단 삶의 기준(진실성, 정직, 사랑 등)에 대해 서로 이해가 달라 서로 흥미를 느끼는 대화의 주제가 다른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며,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이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 사고방식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야 할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❷ 좋은 점

세상과 구별이 아닌 분리되려는 수도원적 신앙에서 벗어나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관계의 확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일터 선교사와 같은 비전을 품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 다니엘은 평생 동안 네 명의 왕을 만났습니다. 또한 바벨론과 그를 멸망시키고 패권을 잡은 바사 제국에서 모두 최고의 공직자로 살아갔습니다. 역사, 종교, 문화, 행정제도가 완전히 다른 두 제국에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지만 시대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격변의 시대에서 변화를 수용하는 포용적 태도를 가졌습니다.

2.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소통 수단이지만 사람들의 비교 의식을 부추기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은 SNS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SNS 이용하기

❶ 정보를 선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모든 정보나 트렌드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과 말씀을 통해 바르게 정보를 여과한 후 수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묵상해야 합니다.

②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자신의 것을 과시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의 태도를 배우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진리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③ 시간과 감정을 관리하기

애초에 SNS를 이용하는 시간부터 관리계획을 세워 중독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내가 올리는 글, 사진, 댓글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으며 반대로 품격을 떨어뜨리고 빛을 가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세상을 등지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 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섞여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 또한 세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지혜롭게 포용하되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기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를 전할 수 있고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4. 나의 문화적, 신앙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거룩함을 위한 나의 신념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①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입장과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약 1:19).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② 공통점을 찾아 존중하며 대화하기

나와 상대방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강조하기보다 보편적 양심에 따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예: 인간 존엄성, 진실성, 사랑 등)을 통해 대화를 시도합니다.

③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하게 해결하기

무조건 그 문제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솔직하게 대화하되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고전 16:14). 그래야 정죄가 아닌 위로와 격려, 올바른 권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5. 문화를 포용하기 위해 미디어를 가까이 하고 최신 유행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하나요? 나의 의견을 써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 봅시다.

❶ 필요하다는 입장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유행과 문화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하므로 이를 아는 것은 효과적인 복음 전달이나 대화의 시작점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❷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문화를 따라 가기보다는 진리 안에서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상 유행은 자주 바뀌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따라간다고 거기에 휘둘리면 신앙의 중심을 잃을 수 있으며, 진정한 소통은 유행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에서 나오기에 유행을 몰라도 진심 어린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관계는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세상과의 연결과 소통에 초점을 둔 시각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을 둔 시각입니다. 따라서 두 입장 모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여 나누어 봅시다.

1. 뱀은 어떤 동물입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 성경에서 뱀은 부정적인 상징으로 많이 등장하지만 때때로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 무엇보다 박해와 위험 속에 놓이게 될 그들의 삶을 숨김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고 제자들은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때 예수님은 그렇기에 말씀으로 신중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여기서 지혜로움은 단순히 세상적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황을 분별하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적개심 속에 사는 자들이기에 진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에서 위험을 피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뱀 같은 지혜는 위험을 예견하는 기민함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분 내지 말고 영리하게 대화하는 것과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2. 비둘기는 어떤 동물인가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과 순전함을 상징하며, 특히 성령의 임재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땅에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는 평화와 회복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둘기를 상징으로 순결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마음의 동기와 행동에서 거짓이나 간교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불순한 동기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이득을 취함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를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두 가지(지혜와 순결)의 균형을 강조하십니다. 지혜만 있고 순결이 없으면 교활해지기 쉽고, 순결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어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4.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지혜는 언제 필요할까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❶ 가치관이 다를 때

진리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의 문을 닫지 않으려면 분별과 절제된 말,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비그리스도인과의 불일치하는 가치관을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마다 상대방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단절하려 한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는 하나도 붙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❷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로 이끌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려면 그들의 다름과, 때론 연약함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닌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❸ 공동체에서 협력할 때

의견이 달라도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듣고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옳게 여겨져도 사람들이 충분히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요하기보다는 설득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포용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이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더러운 이득을 구하거나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며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한다는 목적을 품고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약 3:17). 결론적으로 믿음은 분명하게, 그러나 태도는 온유하게, 말보다는 삶을 통해, 지혜롭게 대화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피함으로, 기도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